

중1-1
국어
미래엔(신)

2026 중1-1 국어 미래엔(신) | 4(1) 옥수수 뺱소니 직전 보강

이 서적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자료의 무단 배포, 도용 시,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것만은 알고 시험장에 가자!

AI 직전 보강



이번 단원에서는 어떤 문제들이 출제되나요?

이번 단원 「옥수수 뺱소니」에서는 아래와 같은 문제들이 출제돼.

1. 이와 같은 글의 특징을 묻는 문제
2. 글의 서술 방식을 묻는 문제
3. 글에 나타난 인물들의 특징 및 성격, 심리를 파악하는 문제
4. 글의 내용을 파악하는 문제 등



그렇다면 이 단원을 공부할 때는 이 글의 갈래상 특징, 서술 방식, 인물들의 특징 및 성격, 심리 등을 알아두면 되겠네요~

맞아. 중요한 내용들을 하나하나 설명해 줄게. 이 작품은 ‘나’가 두 번의 자동차 사고를 겪으면서 벌어지는 일을 그린 소설이야. 상황에 떠밀려서 옥수수 아저씨에게 책임을 떠넘긴 후 자신의 잘못을 후회하는 ‘나’의 상황을 통해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성장의 경험을 얻게 하는 작품이지.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서술되고 있으며 시간의 흐름에 따른 인물의 심리 변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어.



넵. 그런데 ‘나’의 성장이 글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다는 건가요?
이해가 잘 안 돼요.

‘나’는 옥수수 아저씨와 여러 일을 겪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아. 이전의 ‘나’는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거짓말을 했어. 하지만 옥수수 아저씨와의 일을 통해 ‘나’는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게 되고 양심의 가책을 느낄 줄 아는 사람이 되었단다. ‘나’가 성장했다고 볼 수 있지.



중1-1
국어
미래엔(신)

2026 중1-1 국어 미래엔(신) | 4(1) 옥수수 뺑소니 지문 분석

이 서적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자료의 무단 배포, 도용 시,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파란색 설명은 주석 교과서에서 중요한 부분에 해당하며, 빨간색 설명은 내신 시험 출제 유형에 대한 설명입니다.

지문 분석

딱!

“아! 너 잡히기만 해 봐!”

재준이의 뒤통수를 강타하자, 녀석의 고함과 쌍시옷 소리가 짜릿하게 귓속으로 파고들었다. 장난을 걸었을 때 나오는 최고의 반응이다. 어김없이 녀석이 짧은 다리로 열심히 페달을 밟으며 쫓아왔다. 이렇게 자전거로 신나게 달리면 이십 분 걸리는 하룻길이 금방이다.

“야, 이 뺑소니, 게 셋거라!”

잡히지 않는 나(서술자이자 주인공(김현성) - 1인칭 주인공 시점. 이 글의 서술 방식에 대해 묻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인물의 속마음을 솔직하게 전달한다.'와 같은 적절한 선지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 '1인칭 화자가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과 감정만을 의식의 흐름대로 서술하고 있다.'와 같은 잘못된 선지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도 대단하지만 이 년째 한결같이 쫓아오는 녀석의 근성도 눈물겹다.

녀석과는 어릴 때부터 친구였는데 교복을 입은 뒤로는 웬만해서 자전거로 지지 않았다. 내 것은 상표 없는 일 단짜리 고물이지만,(가정 형편이 여유롭지 않음을 짐작할 수 있음.) 녀석의 이십일 단 자전거에 기죽지 않은 이유다.

“삼 단 부스터 발진!”

간격이 좁혀지지 않자 재준이가 내뱉은 말이었다. 유치한 녀석, 그냥 기어를 변속했다고 말할 것이지. 네가 그래서 발전이 없는 거라니까!

헉, 그런데 진짜 거리가 좁혀지잖아? 녀석의 목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잡히면 가만 안 둔다!”

숨넘어가는 고함 소리에 뒤를 보니 벌써 닿을 듯한 거리였다. 시뻘건 얼굴에 튀어나온 핏줄, 사악하게 웃는 녀석의 얼굴이 꼭 염라대왕 같았다. 이 자식, 오늘따라 무섭네? 발전했잖아!

짜악!

순간 등이 번쩍했다. 따라잡혀 한 대 맞은 것이다. 오아, 등이 불타오른다!

이렇게 된 이상, 체면을 차릴 처지가 아니었다.(재준이에게 질까 봐 다급해짐.) 나는 일어서서 온몸으로 페달을 밟기 시작했다. 일 단짜리 자전거로 녀석에게 맞설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이었다.

잠시 재준이와 멀어지는 것 같더니 다시 점점 가까워지기 시작했다. 등은 여전히 화끈거렸다. 또 얻어맞을 생각을 하니 간담이 서늘해졌다. 이건 자존심이 걸린 문제다.(자전거 경주에서 이겨 자존심을 지키고자 함. '나의 성격을 묻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머리고 등짝이고 연신 얼어터지기 전에 나만의 숨씨로 녀석의 코를 납작하게 해 주어야 한다.

다시 내 뒷바퀴와 녀석의 앞바퀴가 마주치려는 찰나, 브레이크를 잡으며 왼쪽으로 급히 꺾었다.(“나는 친구와 자전거 경주를 하던 중 급히 방향을 틀었다.’와 같은 적절한 선지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빠아아앙!

갑자기 트럭 경적 소리가 뒤통수를 찔렀다.(자전거 경주에만 몰두하여 트럭과 부딪칠 뻔함.) 그와 동시에 끼익 소리가 나며 트럭이 내 옆을 스쳤다. 나는 화들짝 놀라 핸들을 급히 오른쪽으로 틀었다. 하지만 당황한 나머지

너무 크게 꺾고 말았다.

“어어, 야!”

사색이 된 재준이의 목소리와 동시에 나는 보호 난간을 들이받고 넘어졌다.(첫 번째 교통사고. ‘나’가 트럭과의 충돌을 피하려고 갑자기 방향을 바꾸다가 넘어짐.) 자전거에서 떨어져 데굴데굴 굴렀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라 정신이 하나도 없었다.

▶자전거를 타던 ‘나’가 트럭과의 충돌을 피하려다 넘어짐.

[“학생! 괜찮아?”

쇠뚜껑 깨질 듯이 짹짹한 목소리가 멀리서 들려왔다. 어느새 아저씨가 차를 갓길에 세우고 이쪽으로 뛰어오고 있었다. 나는 상체를 일으켜 세웠다.

“일어나지 말고 누워 있어, 학생!”

창피해 죽겠는데 여기에 누워 있으라니. 나는 멀쩡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일부러 벌떡 일어섰다. 풀썩에 굴러서 그런지 까진 곳 하나 없었다.(‘나’가 다친 곳이 없음을 알 수 있음. “나’는 크게 다쳤고 트럭 운전자 아저씨가 놀라 황급히 ‘나’를 살피 주었다.’와 같은 잘못된 선지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오십 미터를 넘게 뛰어온 아저씨가 헐떡이며 도착했다. 생각보다 덩치가 컸다.

“아픈 데 없니?”

“예.”

“어지럽진 않고?”

“괜찮은데요.”

질문을 뿌리치려고 반사적으로 짧은 대답이 튀어 나갔다. 재준이가 어느새 내 자전거를 옆에 세워 놓았다. 자전거도 별 이상은 없는 것 같았다.

“그래도 병원에 한번 가 봐야지.”

“아, 진짜 괜찮다니까요.”

“괜찮은지는 지금 모르는 거야. 내일 되면 아플 수도 있어.”(‘나’의 몸 상태를 진심으로 염려함. - 인간적이고 따뜻한 면모)

큰 덩치와 달리 순한 인상을 가진 아저씨가 머리를 긁적였다. 그러고는 품에서 휴대 전화를 꺼냈다. **딱 봐도 옛날 폴더 폰인데 도금이 벗겨져 무지 낡아 보였다.**(아저씨의 형편이 넉넉하지 않음을 짐작할 수 있음.)

“학생, 핸드폰 번호 좀 불러 줘.”(이후 ‘나’의 몸 상태를 확인하고, ‘나’의 부모님에게도 사고 상황을 설명하고자 연락처를 물어봄. - 책임감 있는 태도)

이 아저씨가 내 아픈 곳을 건드리다니.(핸드폰이 없음. - ‘나’의 가정 형편을 짐작할 수 있음.)

“없는데요.”]([]: 해당 부분에서 알 수 있는 아저씨의 성격을 묻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아저씨가 날 위아래로 쳐다보았다. 중학생인데 핸드폰이 없다고 하니, 거짓말이 아닌지 살피는 눈치였다. 이봐요, 아저씨가 들고 있는 폴더 폰이 더 거짓말 같거든요?

“그럼 집 전화번호라도 알려 줘.”(책임감 있는 태도)

나는 마지못해 이름과 번호를 불러 주었다. **아저씨가 번호를 저장하는 데 한참 걸렸다.**(핸드폰 조작이 능숙하지 않음.) 나와 재준이는 **아저씨의 낡은 핸드폰**(해당 소재를 통해 추측할 수 있는 아저씨의 형편을 묻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만 멍하니 바라보았다.

“학생, 여기 잠깐 있어 봐.”

아저씨가 트럭으로 낡다 뛰기 시작했다. 트럭까지 오십 미터쯤이니까 왕복 백 미터. 더운 날씨에 아저씨도 고생이다.

“야, 저 아저씨 옥수수 장사하나 본데?”(아저씨는 트럭에서 옥수수와 계란빵을 파는 일을 함. - 형편이 넉넉하지 않음을 짐작할 수 있음. ‘트럭 운전자 아저씨는 옥수수와 계란빵 장사를 하는 사람이었다.’와 같은 적절한 선지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재준이 말을 듣고서야 트럭에 눈길이 갔다. 핸드폰만큼이나 낡은 일 톤 트럭인데 짐칸을 포장마차로 개조해 쓰고 있었다. 빛바랜 현수막에는 ‘삶은 옥수수, 영양계란빵 세 개 이천 원’ 이렇게 쓰여 있었다. 아저씨가 다시

헐레벌떡 뛰어왔다.

“헉, 헉……. 학생, 이거 받아.”

메모지였다. 아저씨 이름과 핸드폰 번호가 적혀 있었다. 다른 어른들은 폼나게 명함을 주던데 그런 것도 없나 보다.

“내가 지금 급한 일 때문에 가 봐야 할 것 같아.(늦둥이 아기가 아프다는 연락을 받고 병원에 가던 중이었음.) 학생, 나중에라도 혹시 아프면 이리로 꼭 연락 줘. 알았지?”

아저씨의 찡찡매는 표정을 보니 무슨 급한 일이 있는 것 같았다. 나는 속으로 ‘연락 안 해요!’라고 외치고 입으로는 “네.” 하고 말했다.(다친 곳이 없기 때문에 귀찮고 불편한 상황에서 빨리 벗어나고자 함.)

“꼭 연락 줘!”

아저씨는 손을 귀에 대며 통화하는 시늉을 보이고는 트럭으로 뛰어갔다. 꼭 내가 아파서 전화하길 바라는 것 같다.

“그래도 나쁜 사람은 아니네.”(아저씨가 ‘나’를 진심으로 걱정하여 ‘나’가 넘어진 상황에서 책임을 다하고자 했기 때문에) 재준이가 자전거에 올라타며 말했다.

“그래, 나쁜 사람은 아니지, 이 나쁜 놈아! 너 때문에 이게 뭐냐.”

장난과 원망이 섞인 내 말에 재준이 녀석은 그저 씩 웃었다.

▶처음: ‘나’는 친구 재준이와 자전거 경주를 벌이다가 옥수수 트럭에 치일 뻔함.

삐익, 우우우웅!

이것은 헤어드라이어 소리가 아니다. 내 컴퓨터 부팅 소리다. 작년에 중학교 입학할 때 학교에서 받은 건데 어디서 이런 할아버지 컴퓨터를 구해다 줬는지 모르겠다.(학교에서 컴퓨터와 인터넷 요금을 지원받고 있음. - 가정 형편이 넉넉하지 않음을 짐작할 수 있음. ‘컴퓨터와 인터넷 요금을 지원받은 상황으로 보아 ‘나’의 집안 경제 상황은 좋지 않다.’와 같은 적절한 선지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부팅도 엄청 오래 걸려서, 집에 오자마자 전원 버튼을 누르면 평상복으로 갈아입은 후에야 켜진다.

그래도 웬만한 게임은 다 돌아가고, 인터넷 요금도 학교에서 내 준다. 나는 작년부터 온라인 게임을 실컷 할 수 있게 되었다. 적어도 엄마 아빠가 퇴근하는 일곱 시까지는.

게임할 땐 꼭 타임머신을 타는 것 같다. 가끔씩 시계를 보면 성큼성큼 지나있는 시간에 깜짝깜짝 놀란다. 일곱 시가 다가오면 점점 속이 쓰리다.

때르르릉 때르르릉.

계속 지다가 모처럼 이기고 있는 이때, 마지막으로 영혼을 불사르던 바로 이 순간에 전화벨이 울렸다. 짜증이 밀려왔다. 그냥 받지 말아 버릴까?

잠깐, 만약 엄마 전화라면? 그랬다가는 난리 날 거다. 지난번처럼 컴퓨터를 창고로 치워 버리는 재난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 치사해도 받아야 한다.(“나’는 전화한 사람이 아저씨인 줄 알았지만 게임에 집중하느라 귀찮아서 받고 싶지 않았다.’와 같은 잘못된 선지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여보세요.”

“거기, 김현성이라는 애 집 맞습니까?”

아, 짹짹한 목소리. 아까 그 옥수수 트럭 아저씨다. 괜히 받았다.

[“부모님 아무도 안 계시니?”

“네.”

“언제쯤 들어오셔?”

“몰라요.”

“그럼 부모님 전화번호라도…….”

“일할 땐 못 받으시는데요.”]([]: ‘나’가 거짓말을 한 이유 ① 전화를 어서 끊고 다시 게임을 하고 싶어서 ② 다친 곳이 없어서 부모님께 알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③ 자전거 경주를 하다 넘어진 것을 부모님이 알게 되면 혼날까 봐 걱정되어서)

거짓말이 영 점 이 초 만에 바로바로 튀어 나갔다. 가만 보면 나도 머리가 좋다. 그런데 성적은 왜 그 모양일

까.

“집에 가서 보니 다친 데는 없었고?”

아, 이 아저씨 되게 눈치 없네. 내가 수화기를 붙들고 있는 지금, 분신과도 같은 내 캐릭터는 가만히 선 채로 계속 얻어맞고 있던 말이다!(게임을 할 생각에 옥수수 아저씨가 자신을 걱정하는 것을 귀찮고 성가시게 여김. - 단순하고 철이 없음. “나”는 사고 이후에 몸에 이상이 없으므로 일상을 보내고 있던 중 아저씨의 전화를 귀찮다고 여기고 있다.’와 같은 적절한 선지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부모님 오시면 꼭 연락 달라고 전해 줘.”

“네!”

투옥.

아저씨 말이 끝나자마자 수화기를 내리꽂듯이 놓아 버리고는 방으로 달려갔다. 내 분신아, 반드시 살아 있어야 한다!

아아……. 젠장. 드러누웠네. 이번 판은 이길 수 있는 절호의 찬스였는데! **날 높힌 것도 모자라서 내 캐릭터까지 높혀?**(자신을 걱정하는 옥수수 아저씨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함.) 정말로 도움이 안 되는 아저씨다.

팡, 팡, 팡!

같은 물건이 세 개 모이면 터져 없어진다. 이거 스트레스 제대로 풀리는 게임이다.

재준이에게 사정사정해서 스마트폰을 빌렸다. 어제 자기 때문에 사고가 난 것이 미안했는지, 생명과도 같은 물건을 내게 건네줬다. 물론 녀석이 학원을 마치면 돌려주는 조건이었지만.

요새 ‘팡팡팡’이라는 게임이 유행인데, 나만 스마트폰이 없어서 친구들 대화에 끼질 못했다. 게임을 마스터 하는 건 물론, 랭킹까지 올려서 확실히 눈도장을 찍을 작정이었다.

엄마가 시킨 심부름을 하느라 마트로 향하는 길에도 팡팡 연타는 계속되었다. 이십만 점을 넘으면 랭킹에 들 수 있는데 될 듯하면서도 안 됐다. 살짝 약이 오르기 시작했다.

익히 아는 골목이라 앞도 안 보고 계속 게임에 몰두했다.(주변을 살피지 않고 게임을 하면서 길을 걷는 위험한 상황) 이제 이 골목길만 지나가면 제법 큰 마트가 나온다.

오만 점, 십만 점, 십오만 점……. 이번 판은 점수 쌓이는 게 예사롭지 않다. 남은 제한 시간은 십 초. 잘하면 랭킹 안에 들 수 있을 것 같다.

오오, 이십만 점! 점점 빠져들었다. **이 공간에 게임 속 물건들과 나만 있는 것 같았다.**(게임에 지나치게 몰두함.) 경쾌한 효과음이 나의 최고 점수를 예고하는 순간이었다.

바로 그때, 옆에서 불빛이 번쩍했다. **고개를 돌리자마자 검은 자동차가 날 덮쳤다.**(두 번째 교통사고. 게임을 하며 길을 걷다가 자동차에 치임.)

끼이이익, 텅!

굉음과 함께 엄청난 충격이 전해졌다. 하늘과 땅이 몇 번 바뀌었는지 모르겠다. 몸에서 영혼이 분리되는 느낌이었다. 먼지가 얼굴을 덮고 머리는 빙빙 돌았다.(첫 번째 사고와 달리 자동차에 부딪혀 몸에 큰 충격을 받았음.)

“아, 인마! 어딜 보고 다니는 거야?”(자동차에 치인 ‘나’를 걱정하기는커녕 오히려 나무람. - 차갑고 비인간적임. 어른스럽지 못함. 이 글에서 알 수 있는 선글라스 아저씨의 행동과 성격을 묻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한 책임감이 없다.’와 같은 적절한 선지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 ‘주변을 잘 살피지 않았으며 ‘나’에게 사고의 잘못이 있다고 말하였다.’와 같은 적절한 선지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정신을 차려 보니, **선글라스를 쓴 아저씨가 팔짱을 낀 채로 내 앞에 서 있었다.**(자신이 운전하던 자동차에 치여 쓰러진 ‘나’를 태연하게 내려다봄. - 무책임하고 비인간적임.) 아, 여기 골목 삼거리였구나.

어제 사고 났는데 오늘 차에 또 치이다니! 나는 창피한 나머지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하지만 어제와 달리 핑글핑글 머리가 어지럽고, 다리도 후들거렸다.

그래도 아프다고 말하긴 싫었다.

“아, 저, 꽤, 괜찮아요!”(자존심 때문에 괜찮은 척함.)

“정말 괜찮아?”

“네, 네!”

선글라스 아저씨는 내 몸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까만 안경알 뒤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었다.**(속내를 알 수 없는 음흉함을 느낌.)

“안 괜찮은 것 같은데?”

“아니에요. 어제도 사고 났는데 멀쩡했어요.”

“뭐? 자랑이다, 인마.”

아저씨가 피식 헛웃음을 내뿜었다.

“네가 잘못된 거 알지? 길을 갈 때는 항상 주변을 살피란 말이야.”(사고의 책임을 어린 ‘나’에게 떠넘김. - 무책임하고 비인간적임. 어른스럽지 못함.)

“네.”

여기까지 말한 아저씨가 갑자기 요리조리 주위를 살폈다.(사고 현장에 목격자와 시시 티브이(CCTV)가 있는지 확인함. ‘선글라스 아저씨는 요리조리 주위를 살피며 누군가 목격한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였다.’와 같은 적절한 선지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나 싶어 나도 주위를 둘러보니 아무도 없었다. **아저씨가 승용차에 급히 타면서 말했다.**(책임을 피하고자 연락처조차 남기지 않고 자리를 급히 떠남.)

“앞으로 조심해라!”

부우웅!

선글라스 아저씨 차가 출발했다.(의도적으로 사고 현장을 빠르게 벗어나.) 뭔가 좀 이상했다. 중요한 게 빠진 것 같은데 그게 뭐였더라? 아, 연락처!

이미 출발한 뒤라 늦었다. 그렇다면 차 번호라도 외워 둬야지! 어디 보자, 이십칠 라에, 어어? 방향을 꺾어서 사라졌다. 젠장…….

골목길이 허전해졌다. 기분이 영 찝찝했다. 이제야 팔꿈치랑 옆구리가 쓰라려 오기 시작했다. 이려고 있을 때가 아닌데. 재준이 스마트폰은 어디 있지?

나는 어둑어둑해진 골목길을 휘휘 둘러보며 떨어뜨린 스마트폰이 어디 있는지 살폈다. 저기 있네! 생각보다 금방 찾았다.

그런데…….

망했다. 재준이의 스마트폰 액정에 대각선으로 금이 짝 가 버렸다. 이제 어떡하지? 이거 수리비 장난 아닐 텐데. 이번 주 정말 **재수 음 붙었다.**(‘나’가 ‘재수 음 붙었다.’라고 생각한 까닭을 묻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집에 와서 옷을 벗어 보니 역시나 옆구리가 넓게 까져 피가 묻어 나왔다. 그런데 살갓보다도 마음이 쓰라려 죽겠다. 이거 아빠한테 얘기하면 맞아 죽을 거다.

선글라스 아저씨도 진짜 황당하다.(선글라스 아저씨의 무책임한 태도에 화가 남.) 왜 나한테만 그러지? 자기도 조심하지 않았잖아! 괜찮은 척했다고 그냥 가면 어떡해? 생각하면 할수록 짜증났다.

깨진 스마트폰과 얄미운 선글라스 아저씨가 번갈아 내 마음을 후벼 팠다. 그럴수록 힘이 빠졌다.]([]: ‘나’의 심리 ① 수리비 때문에 막막함. ② 부모님께 혼날까 봐 걱정됨. ③ 친구에게 빌린 스마트폰이 망가져 난감함.)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해 보았다. 차 번호를 몰라서 경찰서에 신고해 봐야 별 소용이 없을 것 같았다. 그러면 ‘교통사고 목격자를 찾습니다.’라고 써 붙이는 방법이 있는데, 주변에 아무도 없었다는 사실이 문제였다. 게다가 내가 많이 다친 것도 아니고……. 생각하면 할수록 골치 아팠다.

나는 온갖 잡생각을 하며 몸을 다 씻고 수건을 두른 채 부엌으로 나왔다. 식탁 위에 짝 깨진 스마트폰이 보였다. 다시금 정신이 아찔해졌다. 날 보고 “책임져!”라고 외치는 것 같았다.

지문 분석

[앞부분의 줄거리] 태어날 때부터 멀미가 심한 만복이는 무엇에 타기만 하면 구토를 해서 학교를 두 시간씩 걸어서 등교한다. 만복이는 딱히 하고 싶은 것도 없고, 수업 시간에는 잠만 자기 일쑤이다. 담임 선생님은 무기력한 날을 보내는 만복이에게 육상부를 추천한다. 만복이는 선생님의 부추김에 떠밀리듯 육상부에 들어갔지만 **경보에 재능을 발견한 것 같아서 즐거움을 느낀다.**(이 글의 '만복'의 태도 변화에 대해 묻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 '만복은 무기력하던 나날 중 경보에 재능을 발견하고 즐거움을 느낀다.'와 같은 적절한 선지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만복이가 전국 체전 예선에 참가하려고 서울로 가다가 멀미 때문에 육상부원들에게 피해를 준다. 결국 육상부를 그만두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간 만복이가 꿈을 향해 노력하는 친구들과 달리 자신만 뒤처지는 것 같아 불안해한다.

▶ 늘 무기력한 만복이는 경보에 재능을 발견하지만 멀미 때문에 육상부를 그만둠.

S#53(이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묻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 '등장하는 인물이 수나 시공간의 제약이 있다.'와 같은 잘못된 선지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해당 글은 시나리오입니다. / 시나리오의 구성 요소에 대한 옳은 설명을 찾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수지: 왜, 맘이 바뀌었냐고?

만복: 그게……. 선배 말이 맞아요. 공부는 잘 못할 거 같고. 운동은 쉬워 보여서 시작한 거예요. 근데 잘 모르겠어요. 이제는 이거라도 안하면 왠지 좀…….

수지: 왠지 뭐?

만복: ……무서워서요.

▶ 만복이는 친구들과 달리 뒤처지는 것 같아 불안함을 느낌.

[중간 부분의 줄거리] 다시 경보를 시작한 만복이는 전국 체전에 나갈 수 있게 되고, 육상부 선배 수지를 본 받으려고 열심히 연습하다가 악몽까지 꾸다. **전국 체전에 출전하기 위하여 서울까지 걸어가던 만복이**(만복이는 멀미 때문에 교통수단을 이용하지 못함.)는 발을 다치고도 대회 출전을 고집하고, 그런 만복이를 말리던 수지가 부상이 심해져 병원에 실려 간다. 혼자 대회에 출전한 만복이가 경기 시작부터 빠르게 앞서 나가자 상대 선수들도 속도를 올려 경기가 과열되고, 결국 선두를 다투다 다 같이 넘어진다.

▶ 전국 체전에 출전한 만복이가 선두를 다투다 넘어짐.

S#91

여전히 일어나지 못하는 만복이의 눈에 자신의 벗겨진 신발과 피로 붉게 물든 양말이 보인다. 그때 점차 어디선가 들려오기 시작하는 비행기 소리에 이어 머리 위로 웬 그림자가 만복이를 덮으며 지나가자 고개를 들어 하늘을 올려다보는 만복. 비행기 한 대가 고요하게 날아가고 있다. 비행기 소리만이 점점 뚜렷하게 들려온다.

만복(내레이션): 비행기, 몇 번째더라? 소원 빌 게 있었는데……. **아! 근데 나 왜 이렇게 빨리 달렸던 걸까? 어쩌면 그냥, 조금 느려도 괜찮지 않을까?**(우연히 재능을 발견하여 경보를 시작했을 뿐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고민해 보지 않았음을 인식함. 만복이의 깨달음. 해당 부분에서 만복이가 깨달은 점을 추측하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그때 정적을 깨며 다가온 진행 요원.

진행 요원: 저기요, 저기요! 계속 뛴 거예요, 말 거예요?

만복, 멍하니 진행 요원을 쳐다보다가 이내 편안한 표정으로.

만복: **아니요, 그만할래요.**(경보는 자신이 진짜 원하는 것이 아님을 깨닫고 경기에 기권함.)

중1-1
국어
미래엔(신)

2026 중1-1 국어 미래엔(신) | 4(1) 옥수수 뺑소니 지문 확인

이 서적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자료의 무단 배포, 도용 시,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지문 확인

딱!

“아! 너 잡히기만 해 봐!”

재준이의 뒤통수를 강타하자, 녀석의 고함과 쌍시옷 소리가 짜릿하게 귓속으로 파고들었다. 장난을 걸었을 때 나오는 최고의 반응이다. 어김없이 녀석이 짧은 다리로 열심히 페달을 밟으며 쫓아왔다. 이렇게 자전거로 신나게 달리면 이십 분 걸리는 하룻길이 금방이다.

“야, 이 뺑소니, 게 셋거라!”

잡히지 않는 나(서술자이자 주인공(김현성) - _____ 시점. 이 글의 서술 방식에 대해 묻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인물의 속마음을 솔직하게 전달한다.’와 같은 적절한 선지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 ‘1인칭 화자가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과 감정만을 의식의 흐름대로 서술하고 있다.’와 같은 잘못된 선지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도 대단하지만 이 년째 한결같이 쫓아오는 녀석의 근성도 눈물겹다.

녀석과는 어릴 때부터 친구였는데 교복을 입은 뒤로는 웬만해서 자전거로 지지 않았다. 내 것은 상표 없는 일 단짜리 고물이지만,(가정 형편이 _____ 않음을 짐작할 수 있음.) 녀석의 이십일 단 자전거에 기죽지 않은 이유다.

“삼 단 부스터 발진!”

간격이 좁혀지지 않자 재준이가 내뱉은 말이었다. 유치한 녀석, 그냥 기어를 변속했다고 말할 것이지. 네가 그래서 발전이 없는 거라니까!

헉, 그런데 진짜 거리가 좁혀지잖아? 녀석의 목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잡히면 가만 안 둔다!”

숨넘어가는 고함 소리에 뒤를 보니 벌써 닿을 듯한 거리였다. 시뻘건 얼굴에 튀어나온 핏줄, 사악하게 웃는 녀석의 얼굴이 꼭 염라대왕 같았다. 이 자식, 오늘따라 무섭네? 발전했잖아!

짜악!

순간 등이 번쩍했다. 따라잡혀 한 대 맞은 것이다. 오아, 등이 불타오른다!

이렇게 된 이상, 체면을 차릴 처지가 아니었다.(재준이에게 _____ 다급해짐.) 나는 일어서서 온몸으로 페달을 밟기 시작했다. 일 단짜리 자전거로 녀석에게 맞설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이었다.

잠시 재준이와 멀어지는 것 같더니 다시 점점 가까워지기 시작했다. 등은 여전히 화끈거렸다. 또 얻어맞을 생각을 하니 간담이 서늘해졌다. 이건 자존심이 걸린 문제다.(자전거 경주에서 _____ 을 지키고자 함. ‘나의 성격을 묻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머리고 등짝이고 연신 얻어터지기 전에 나만의 숨씨로 녀석의 코를 납작하게 해 주어야 한다.

다시 내 뒷바퀴와 녀석의 앞바퀴가 마주치려는 찰나, 브레이크를 잡으며 왼쪽으로 급히 꺾었다.(“나는 친구와 자전거 경주를 하던 중 급히 방향을 틀었다.”와 같은 적절한 선지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빠아아앙!

갑자기 트럭 경적 소리가 뒤통수를 찔렀다.(_____ 에만 몰두하여 _____ 과 부딪칠 뻔함.) 그와 동시에 끼익 소리가 나며 트럭이 내 옆을 스쳤다. 나는 화들짝 놀라 핸들을 급히 오른쪽으로 틀었다. 하지만 당황한 나머지 너무 크게 꺾고 말았다.

“어어, 야!”

사색이 된 재준이의 목소리와 동시에 나는 보호 난간을 들이받고 넘어졌다.(_____ 번째 _____ . ‘나’가 트럭

중1-1
국어
미래엔(신)

2026 중1-1 국어 미래엔(신) | 4(1) 옥수수 뺱소니 내신 암기

이 서적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자료의 무단 배포, 도용 시,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암기용

1. 「옥수수 뺱소니」 제재 정리

갈래	단편 소설, 현대 소설
성격	개인적, 성찰적
제재	두 번의 교통사고
주제	눈앞의 이익에 휘둘리지 말고 진실한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두 번의 교통사고를 당한 '나'가 자신의 속마음을 솔직하게 전달하는 형식임. 시간의 흐름에 따른 인물의 심리 변화가 두드러짐.

3. 옥수수 아저씨와 선글라스 아저씨의 대조적 태도

옥수수 아저씨	선글라스 아저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픈 곳이 없는지 묻고 병원에 가 봐야 한다고 이야기함. '나'의 연락처를 받아 '나'의 부모님과 통화하기 위해 전화함. 자신의 연락처를 남기며 아프면 꼭 연락할 것을 당부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어디를 보고 다니느냐며 '나'를 나무라고, 사고의 책임을 '나'에게 떠넘김. 목격자와 시시티브이(CCTV)가 없는 것을 확인한 뒤, 연락처도 주지 않고 급히 자리를 떠남.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책임감이 있음. 따뜻하고 인간적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책임감이 없음. 차갑고 비인간적임.

2. 「옥수수 뺱소니」의 짜임

발단	'나'는 친구 재준이와 자전거 경주를 벌이다가 옥수수 트럭에 치일 뻔함.
전개	골목에서 검은 승용차에 치였으나 검은 선글라스를 쓴 운전자는 '나'의 탓을 하면서 사라짐.
위기	'나'가 자동차에 치였다는 사실을 안 부모님은 옥수수 아저씨를 뺱소니범으로 몰고 '나'를 입원시킴.
절정	병실에 허름한 모습으로 찾아와 사과를 하는 옥수수 아저씨에게 위독한 듯동이 아기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됨.
결말	옥수수 아저씨를 뺱소니범으로 몬 것을 후회하며 병실을 뛰쳐나감.

4. 소재의 의미

옥수수와 계란빵	옥수수 아저씨의 따뜻하고 인간적인 마음이 담겨 있음.
만 원짜리 지폐	가족과 생계를 위해 땀 흘려 일하는 옥수수 아저씨의 현실이 나타남.

TEST 1단계

1. 「옥수수 뺱소니」 제재 정리

갈래	단편 소설, 현대 소설
성격	□인적, □찰적
제재	두 번의 □통사고
주제	눈앞의 □익에 휘둘리지 말고 □실한 □음으로 살아야 한다.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칭 □인공 시점으로, 두 번의 □통사고를 당한 ‘나’가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전달하는 형식임. □간의 □름에 따른 인물의 □리 □화가 두드러짐.

2. 「옥수수 뺱소니」의 짜임

발단	‘나’는 친구 재준이와 자전거 경주를 벌이다가 □수수 □력에 □일 뺱함.
전개	골목에서 □은 □용차에 치였으나 □은 □글라스를 쓴 운전자는 ‘나’의 탓을 하면서 사라짐.
위기	‘나’가 □동차에 치였다는 사실을 안 부모님은 □수수 □저씨를 □소니범으로 몰고 ‘나’를 입원시킴.
절정	병실에 허름한 모습으로 찾아와 사과를 하는 □수수 □저씨에게 위독한 □동이 □기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됨.
결말	□수수 □저씨를 □소니범으로 몬 것을 □회하며 병실을 뛰쳐나감.

3. 옥수수 아저씨와 선글라스 아저씨의 대조적 태도

옥수수 아저씨	선글라스 아저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폰 □이 없는지 묻고 □원에 가 봐야 한다고 이야기함. ‘□’의 □락처를 받아 ‘□’의 □모님과 통화하기 위해 □화함. 자신의 연락처를 남기며 □프면 꼭 □락할 것을 당부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어디를 보고 다니느냐며 ‘□’를 □무라고, 사고의 책임을 ‘□’에게 떠넘김. 목격자와 □시 □브이(CCTV)가 없는 것을 확인한 뒤, 연락처도 주지 않고 □히 □리를 □남.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책임감이 □음. □뜻하고 □간적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책임감이 □음. 차갑고 □□간적임.

4. 소재의 의미

옥수수와 계란빵	옥수수 아저씨의 □뜻하고 □간적인 마음이 담겨 있음.
만 원짜리 지폐	□족과 □계를 위해 땀 흘려 일하는 □수수 □저씨의 □실이 나타남.

TEST 4단계

1. 「옥수수 빵소니」 제재 정리

갈래	단편 소설, 현대 소설
성격	___적, ___적
제재	두 번의 _____
주제	눈앞의 ___에 휘둘리지 말고 ___한 ___으로 살아야 한다.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_____ 시점으로, 두 번의 ___를 당한 ‘나’가 자신의 ___을 솔직하게 전달하는 형식임. • ___의 ___에 따른 인물의 ___가 두드러짐.

2. 「옥수수 빵소니」의 짜임

발단	‘나’는 친구 재준이와 자전거 경주를 벌이다가 _____에 ___뺐함.
전개	골목에서 _____에 치였으나 _____를 쓴 운전자는 ‘___’의 탓을 하면서 사라짐.
위기	‘나’가 _____에 치였다는 사실을 안 부모님은 _____를 _____으로 몰고 ‘나’를 입원시킴.
절정	병실에 허름한 모습으로 찾아와 사과를 하는 _____에게 위독한 _____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됨.
결말	_____를 _____으로 묻 것을 ___하며 병실을 뛰쳐나감.

3. 옥수수 아저씨와 선글라스 아저씨의 대조적 태도

옥수수 아저씨	선글라스 아저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___이 없는지 묻고 ___에 가 봐야 한다고 이야기함. • ‘___’의 ___를 받아 ‘___’의 ___과 통화하기 위해 ___함. • 자신의 연락처를 남기며 ___꼭 ___할 것을 당부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디를 보고 다니느냐며 ‘___’를 ___고, 사고의 책임을 ‘___’에게 떠넘김. • 목격자와 ___ (CCTV)가 없는 것을 확인한 뒤, 연락처도 주지 않고 ___를 ___.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책임감이 ___. • ___하고 ___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책임감이 ___. • ___고 ___임.

4. 소재의 의미

옥수수와 계란빵	옥수수 아저씨의 ___하고 ___인 마음이 담겨 있음.
만 원짜리 지폐	___과 ___를 위해 땀 흘려 일하는 _____의 ___이 나타남.

O / X 문제

【1~10】 「옥수수 뺑소니」에 대해 제시된 설명이 적절하면 O, 아니면 X를 선택하시오.

1. 이 글은 1인칭 주인공 시점이다. (O / X)
2. 옥수수 아저씨는 다친 ‘나’를 보고도 무시하고 급하게 도망친다. (O / X)
3. 옥수수 아저씨가 사용하는 핸드폰을 볼 때, 아저씨의 집안 형편이 넉넉하지 않음을 짐작할 수 있다. (O / X)
4. ‘나’는 스마트폰 수리비를 얻어 내기 위해 선글라스 아저씨를 찾아다닌다. (O / X)
5. ‘나’는 스마트폰이 없어서 친구들 대화에 끼질 못한다. (O / X)
6. ‘나’는 첫 번째 교통사고에서 크게 머리를 다친다. (O / X)
7. 선글라스 아저씨는 사고의 책임을 ‘나’에게 떠넘긴다. (O / X)
8. ‘나’는 옥수수 아저씨를 뺑소니범으로 몬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고 있다. (O / X)
9. 옥수수 아저씨가 사고 당시 ‘나’와 연락처를 주고 받고 급히 뛰어간 까닭은 아픈 늦둥이 아기 때문이다. (O / X)
10. ‘만 원짜리 지폐’는 옥수수 아저씨의 현실이 반영되어 있는 소재이다. (O / X)

1. O	2. X	3. O	4. X	5. O	6. X	7. O	8. O
9. O	10. O						

중1-1
국어
미래엔(신)

2026 중1-1 국어 미래엔(신) | 4(1) 옥수수 뺑소니 복습 필기용 지문

이 서적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자료의 무단 배포, 도용 시,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복습 필기용은 선생님들께서 수업을 하실 때 학습용으로 쓰실 수 있습니다. 또는 학생 여러분이 공부한 내용을 바탕으로 '나만의 필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스스로 공부하고 이해한 것을 적용하는 과정을 통해 자신의 이해를 점검하도록 하세요!

지문

딱!

“아! 너 잡히기만 해 봐!”

재준이의 뒤통수를 강타하자, 녀석의 고함과 쌍시옷 소리가 짜릿하게 귓속으로 파고들었다. 장난을 걸었을 때 나오는 최고의 반응이다. 어김없이 녀석이 짧은 다리로 열심히 페달을 밟으며 쫓아왔다. 이렇게 자전거로 신나게 달리면 이십 분 걸리는 하룻길이 금방이다.

“야, 이 뺑소니, 게 섰거라!”

잡히지 않는 나도 대단하지만 이 년째 한결같이 쫓아오는 녀석의 근성도 눈물겹다.

녀석과는 어릴 때부터 친구였는데 교복을 입은 뒤로는 웬만해서 자전거로 지지 않았다. 내 것은 상표 없는 일 단짜리 고물이지만, 녀석의 이십일 단 자전거에 기죽지 않은 이유다.

“삼 단 부스터 발진!”

간격이 좁혀지지 않자 재준이가 내뱉은 말이었다. 유치한 녀석, 그냥 기어를 변속했다고 말할 것이지. 네가 그래서 발진이 없는 거라니까!

헉, 그런데 진짜 거리가 좁혀지잖아? 녀석의 목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잡히면 가만 안 둔다!”

숨넘어가는 고함 소리에 뒤를 보니 벌써 달을 듯한 거리였다. 시뻘건 얼굴에 튀어나온 핏줄, 사악하게 웃는 녀석의 얼굴이 꼭 염라대왕 같았다. 이 자식, 오늘따라 무섭네? 발진했잖아!

짜악!

순간 등이 번쩍했다. 따라잡혀 한 대 맞은 것이다. 으아, 등이 불타오른다!

이렇게 된 이상, 체면을 차릴 처지가 아니었다. 나는 일어서서 온몸으로 페달을 밟기 시작했다. 일 단짜리 자전거로 녀석에게 맞설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이었다.